

■ 박근종 칼럼

## 반도체 의존 외 날개 수출, 궁지에 빠진 제조업 돋고 신산업 혈로 뚫어야



2026년 새해 첫 달 한국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600억 달러를 돌파하며 658억 5,000만 달러로 역대 1월 중 최대실적을 기록했다.

반도체와 자동차를 중심으로 15개 주력 수출 품목 중 13개 품목이 고르게 성장했고, 미국·중국·아세안·인도 등 주요 시장에서도 동시에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수출 회복 흐름이 뚜렷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반도체 수출이 205억 4,000만 달러로 전체 수출의 31.2%를 차지한다. 코스피(KOSPI)가 5,200을 돌파했으나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더 많다.

산업통상부가 지난 2월 1일 발표한 '2026년 1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올해 1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33.9% 증가한 658억 5,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수입은 작년 같은 달보다 11.7% 늘어난 571억 1,000만 달러로 유가 하락이 지속되면서 원유, 가스, 석탄 등 에너지 수입은 감소했다.

이로써 1월 무역수지는 87억 4,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이는 역대 1월 기준 최대 흑자이자 12개월 연속 흑자 흐름이다.

특히 이번 실적은 단순한 금액 증가를 넘어 조업일수를 감안한 일 평균 수출이 28억 달러로 역대 1월 1위를 달성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무엇보다 이번 수출 증가의 중심에는 단연 반도체가 있었다. 반도체가 수출 증대의 '심장'임을 다시 한번 확인한 셈이다. 인공지능(AI) 블록체인 기술 등에 힘입어 수출 실적이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하면서다.

1월 반도체 수출은 205억 달러로 전년 대비 102.7% 급증하며 월 기준 역대 2위 실적을 기록했다. AI 서버 수요 확대와 메모리 가격 상승 흐름이 이어지면서 반도체는 10개월 연속 '해당 월 최대치'를 경신했다.

...

Alibaba 그룹과 텐센트(Tencent) 홀딩스의 기업 가치를 넘어섰다. 글로벌 인공지능(AI) 투자 흐름이 소프트웨어·플랫폼 중심에서 하드웨어 인프라와 반도체 공급망으로 옮겨가면서, 아시아 기술 주지향이 재편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2월 3일 블룸버그와 국내 시장 데이터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주가는 큰 폭으로 상승하며 두 회사의 시가총액이 동시에 불어났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주가는 각각 10%, 8% 반등했다.

양사의 시총은 삼성전자 984조 원, SK 하이닉스 656조 원으로 불어났다. 반면 비슷한 시간 홍콩 증시의 텐센트와 알리바바 주가는 각각 4%, 2% 내렸다. 이로써 텐센트 시총은 5조 2,900억 홍콩달러(약 982조 원), 알리바바 시총은 3조 640억 홍콩달러(약 565조 원)로 줄어들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합산 시총이 1,640조 원으로, 텐센트와 알리바바 시총을 합한 1,547조 원을 넘는다. 블룸버그는 이러한 기업 가치 역전은 "글로벌 인공지능(AI) 붐의 진화가 아시아 기술 센터의 투자·역학을 어떻게 재편했는지를 보여준다"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 이정표는 AI 투자 열풍이 인프라로 이동하면서 공급망 중심에 있는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수혜를 입고 있음을 보여준다"라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오랫동안 아시아 기술 발전의 상징으로 인식돼 온 알리바바와 텐센트를 압도했다'라고 덧붙였다.

블룸버그는 "글로벌 AI 무대에서 한국의 큰 존재감과 대조적으로 중국의 AI 산업 비전은 미국의 수출 규제로 첨단 칩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면서 국산 대체로 점점 더 규정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다만 한국 반도체 기업들은 메모리 칩의 수급 사이클에 과도하게 노출된 위험이 있는 반면에 중국 인터넷 공룡들은 애플리케이션 측면의 강점이 장기적인 성장 안정성을 제공할 수 있다고 블룸버그는 덧붙였다.

또한 이러한 순위 변하는 두 아시아 국가가 추구한 다른 발전 경로도 부각하면서 한국이 '엔비디아(NVIDIA)' 같은 글로벌 산업 리더의 핵심 공급업체로 자리매김을 한 데 반해, 중국은 기술 자립 달성을 초점을 맞춰 왔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업종별 K자형 양극화가 뚜렷할 뿐만 아니라 특히 반도체에만 의존한 외 날개 수출은 탄탄한 구조라 할 수 없다.

무엇보다 호황인 반도체로만 지나치게 쏠린 구조는 취약한 실물경기와 일자리 부족, 내수 부진 등을 더 심화했다는 방증(傍證)이기도 하다. 반도체가 끌어온 온기에 안주해 냉장고에 처한 산업을 살피지 않는다면 1%대 저성장 기조도 벗어나기 힘들다.

높은 변동성(Volatility)과 외풍에 영향 받기 쉬운 경제 구조는 당연히 취약할 수밖에 없다. 지난해 성장률 8.6%를 달성한 대만과의 경쟁은 더욱 힘겨워질 것이 명약관화(明若觀火)하다. 반도체라는 한쪽 날개에만 의존하는 경우 한국 경제는 높이 날 수 없다.

정부는 치열한 구조조정과 정책지원으로 궁지에 빠진 제조업을 돋고 신산업 혈로를 두루 뚫어야만 할 것이다. 특히 성장의 과실이 대기업·수도권·경력자에게 집중되는 'K자형' 성장 학정을 극복하고 청년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청업 국가로의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

작자·칼럼니스트(현, 성북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 | 전, 서울특별시자치구공단 이사장협의회 회장·전, 소방준감)

## K자형 양극화 속 "약한 고리" 먼저 쟁긴다… 서울시, 민생경제 활력 더보탬 가동

【소상공인】역대 최대 금융지원부터 디지털 전환지원까지 체감형 지원 패키지

【골목상권】로컬브랜드 상권 10곳 육성, 디자인 혁신 더해 머물고 싶은 전통시장 조성

【소비자】공정경제종합상담센터→민생경제안심센터 확대 개편… 민생침해 이슈 전반 대응

【취약노동자】제조·야간노동자 특수건강검진, 프리랜서 종합지원 플랫폼



카뱅, 케이, 토스, 하나)로 늘렸다.

이 외에도 원가 상승 등으로 수익성이 악화한 '3高 피해 기업'을 집중 지원하는 '취약사업자지원 자금' 1,000억 원도 신설·운영한다.

고금리 신용대출을 받은 자영업자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3,000억 규모 '희망동행자금(대환대출, 갈아타기대출)' 상환 기간을 5년에서 7년(2년 거치, 5년 균분상환)으로 늘려 원금 상환 부담을 낮춘다. 실제로 3,000만 원 대출 시 월 상환액이 약 12만 5천 원 줄어드는 효과다. 특히 출산·장기입원·간병 등으로 일시적인 경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희망동행자금 600억 원을 우선 배정, 최대 2년의 만기 연장 혜택을 먼저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위기 시기에도 생업을 지킬 수 있도록 돋보인다.

서울시는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한 소상공인 역량 강화를 위해 '소상공인 디지털 역량 향상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다. 디지털 역량이 상대적

으로 취약한 중장년 소상공인 500명에는 실습교육, 맞춤형 컨설팅 및 디지털 전환비용(최대 300만 원)을 지원하고,

일정 수준의 온라인 기반을 갖춘 소상공인 500명에게는 월포인트 컨설팅을 하는 방식이다. 상황에 맞는 지원을 통해 필요한 부분을 집중 보완, 체감할 수 있는 매출 개선으로 연결한다.

'23년부터 이어진 디지털 전환 지원사업 참여 소상공인 분석 결과 평균 9.8%의 매출 상승 성과가 있었고, 매출 향상 상위 10% 기업 중 최고 성장률은 352.3%에 달하는 등 실질적인 경영 개선 효과를 입증하고 있다.

오는 3월에는 서울시 처음으로 '소상공인 힘보탬 박람회'를 개최해 정책 홍보, 현장 컨설팅, 판매 부스 운영 등을 통해 실질적인 판로 확대 기회를 제공한다. 금융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매출 급감이나 제2금융권 대출잔액 증가 등 위기 징후가 포착된 소상공인을 먼저 찾아내는 '서울시 위기 소상공인 조

기 발굴·선제지원 사업'도 한층 강화한다. 올해 3,000명의 위기 소상공인을 새롭게 발굴하는 동시에, 지난 연도 지원 대상에 대한 사후관리 체계도 보강한다. AI 기반 경영진단 제공과 함께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시 추가 지원사업을 연계하여 위기 소상공인이 완전히 회복할 때까지 '밀착 지원'을 방침이다.

또한 불가피하게 폐업을 선택해야 하는 소상공인들에게는 행정 절차 안내부터 폐업 비용, 전직 교육까지 전 과정을 폐기지로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서울시(서울신용보증재단 수행)와 정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수행)의 지원금을 각각 모두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해 폐업 소상공인은 최대 900만 원까지 지원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공정한 프랜차이즈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안전장치도 추가한다. 지난해 자체 최초로 마련한 '필수품목·위약금 가이드라인'에 이어, 올해는 '가맹점 영업 지역 가이드라인'을 새롭게 만든다. 가맹점 수 상위 브랜드를 대상으로 과밀 출점 실태를 조사하고, 합리적인 영업 보호 거리를 제시해 가맹점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다.

② 【전통시장·골목상권】 골목마다 혜력을 불어넣어 드립니다

돌체,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의 경쟁력과 회복력을 높이기 위해 명소 상권 육성과 안전망 강화를 병행해 시민이 찾고 머무는 상권을 조성한다.

## 전시회 연 성파스님 "수행자의 그림으로 사회갈등 완화되길"

"보는 사람 마음의 거울이 중요…내면 보는 시선으로 관람하길"



"이 작품들은 특별히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도 닦는 사람이 그런 것이라 차별점이 있습니다. 작품을 통해 사회 갈등이 조금이나마 완화되고, 모두의 마음이 편해지면 좋겠습니다."(성파스님)

성파스님은 "아무리 훌륭한 서양 미술 작품도 물속에 담그고 강물이 흐르는 듯 연출했다. 방수성과 내구성, 접착성이 탁월한 옷이라는 재료의 성질 덕분에 가능한 전시 방법이다.

성파스님은 "대한불교조계종 종정 성파 대종사의 오랜 수행과 예술세계를 조명하는 전시 '성파선여(性坡禪藝): 성파스님의 예술세계'가 경기도 용인 경기도박물관에서 오는 10일 개막한다.

지난해 만들어진 옷질 회화 신작을 중심으로 옷질 염색, 도자 불상, 도자 대장경판 등 150여 점을 선보인다. 경기도박물관 개관 30주년을 기념해 마련됐다.

전시는 '영겁(永劫)-이득하고 면', '물이불이(物我不二)-나가 내다', '문자반야(文字般若)-글자 너머', '일제 유심조(一切唯心造)-마음대로' 등 총 4부로 구성됐다. 나와 남, 인간과 사물은 둘이 아니라 하나이며 평등하다는 불교의 깨달음을 예술 언어로 풀어냈다.

대표작은 '2025-092'라 이름 붙은 옷질 그림이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에너지가 끈틀거리는 듯한 모습이다.

세상이 처음 만들어지던 아주 먼 옛날, 혹은 시간이 멈춘 듯한 우주의 시작점을 떠올리게 한다.

옷판 위에 옷이 물처럼 흐르고, 바람에 날리듯 자연스럽게 굳어지게 두는 방식으로 제작했다.

성파스님은 전시회 개막을 하루 앞두고 9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같은 사물이라도 더러운 거울로 보면 디롭게 보이고 깨끗한 거울로 보면 사물을 온전히 볼 수 있다"며 "내가 무엇을 의도하고 그런 것이 아니어서 보는 사람이 어떤 마음의 거울로 보고 이해하는지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불교 경전의 핵심인 '반야심경'을 흡판에 새기고 구운 뒤 탑으로 쌓아 올린 '반야심경 도자판'과 옷으로 쓴 글씨(칠서)들도 전시된다.

개막일부터 3일간 드론과 비행선을 이용해 면과 선, 점 형태로 만든 옷질 염색을 공중에 띠우는 전시도 시도할 예정이다. 하늘을 날아다니는 선인을 묘사한 비천상을 구현한 전시 방식이다.

성파스님은 "서양의 미소는 사물을 응시하고 짓는 미소지만 반기사 유상의 미소는 자기 마음을 보고 짓는 미소"라며 "관람객들이 그런 미소로 작품을 보면 좋겠다"고 했다.

## 설 연휴 추천 여행지, 순천시립그림책도서관

순천시는 설 명절 연휴를 맞아 시민과 귀성객이 문화와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순천시립그림책도서관을 정상 운영 중이다.

그림책도서관은 설 당일인 17일을 제외하고 14일부터 18일까지 운영한다.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자료실과 원화 전시, 체험 프로그램을 만나볼 수 있다.

램을 모두 이용할 수 있다.

도서관은 현재 제31회 그림책 원화전시 「이우만, 새를 만나고 그리다」를 운영 중이다.

이번 전시에서는 생태 세밀화가이자 그림책 작가인 이우만 작가가 우리 주변의 새를 관찰하며 그린 작품 160여 점을 만나볼 수 있다.

## 세계타임즈

www.thesegye.com

기자제보: news@thesegye.com

● 회장 이채봉 ● 발행인 심귀영 ● 편집인 이채봉  
● 편집국장 이장성 ● 마케팅본부장 이현진 ● 인쇄인 디엠코리아(주)

● 편집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로 62길 1 3층 (남신빌딩)  
편집국/기사제보 : 1661-8385  
광고국 : 02)717-7272  
FAX : 02)717-7273  
등록 : 2007년 3월 22일 청간:4월23일  
등록번호 : 서울 가 50106  
구독료 : 한달 15,000원 한부10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